

35주년 앞둔 5·18, 민주묘지 추모객 감소 비상

작년 5월 한달 19만명 다녀가...2009년 이후 최저
세월호 참사 여파 학생들 현장체험 활동 취소 탓도
52m 벽화그리기·SNS 홍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급감했던 참배객들의 발길을 붙들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더 많은 참배객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끊이지 않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애국·평화 시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19만1911명으로, 전년도(29만7781명)에 견줘 35.6%(10만5870명)나 감소했다.

관리사무소측은 14만3529명의 참배객이 찾은 지난 2009년 5월 이래 가장 적은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5·18 기념식 등으로 추모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17~19일) 전후로 국립묘지를 찾은 참배객도 14만1701명에 불과, 전년도 같은 기간(17만5252명)에 비해 19.1%(3만3551명)이 감소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일반인 발길이 뜸해진 게 대표적인 참배객 감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달간 초·중·고등학생 등 단체 방문객은 전년도(5만8054명)보다 40.5%(2만3521명) 감소했고 일반인 방문객 감소율도 45.9%(20만9282명→11만3190명)에 달했다.

관리사무소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알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고 있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맞아 민주묘지 내 옛 망월 구역으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한 ‘역사의 광장’에 52m짜리 벽화 그리기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광주·전남지역 미술전공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벽화는 5·18 민주묘지와 5월 광주를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채울 계획이다. 관리사무소는 또 올해부터 젊은 이들을 상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35주년을 알린다는 취지로 SNS 상에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 관계자는 “벽화그리기는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이후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행사가 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SNS 홍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문화전당 둘러보는 중국 상해 미술인들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미술인 20여명이 29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군부대 이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광주 시민사회단체 내달 2일부터...국방부 등 관련기관 전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무등산복원 시민모임)은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일인 다음달 2일부터 시민과 탐방객들을 상대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무등산복원 시민모임 측은 무등산 정상 개방일에 맞춰

증심사 계곡 탐방 안내소 앞에서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참여단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무등산복원 시민모임 측은 1차로 10만인 서명을 받아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 등 군부대 이전 관련기관에 시민들의 뜻을 전달,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동거남 후배와 말다툼 30대 여성 투신 자살

광산구 아파트 8층서

지난 28일 밤 12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아파트 8층에서 A(여·34)씨가 배란다 창문을 넘어 1층 화단으로 투신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동거남의 후배인 B(여·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빨리 외달라’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년 전 이혼한 뒤부터 현재까지

동거남(40)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최근 가정불화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5년 전부터 동거하던 선배의 협담을 해 서로 말다툼이 있었고, 배란다로 나가 뛰어내리려는 것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가정불화로 다툼이 잦았던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해질녘 19:17

달 뜨는 시간 15:45
달 지는 시간 03:30

비 그치고 다시 후끈?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림뒤 맑음	15/25	보성	비온뒤 갠	13/20
목포	흐림뒤 맑음	15/20	순천	비온뒤 갠	14/22
여수	비온뒤 갠	14/20	영광	흐림뒤 맑음	14/23
나주	흐림뒤 맑음	14/24	진도	비온뒤 갠	16/21
완도	비온뒤 갠	14/20	전주	흐림뒤 맑음	14/26
구례	흐림뒤 맑음	13/24	군산	흐림뒤 맑음	14/23
강진	비온뒤 갠	14/21	남원	흐림뒤 맑음	13/24
해남	비온뒤 갠	15/21	홍산도	흐림뒤 맑음	13/17
장성	흐림뒤 맑음	13/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동~남동 0.5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북동~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1.5

◇생활지수

수면	90
운동	20
빨래	20

◇주간 날씨

5/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7(목)
16/29	14/28	15/21	15/23	12/25	12/27	14/23

금호 오너일가 ‘형제의 난’ 회장실 침입 ‘첩보전’까지

박삼구 회장 일정표 빼낸 박찬구 회장 운전기사 등 기소

계열 분리 이후 오너 일가 형제가 다툼을 벌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에 직원들을 동원한 ‘첩보전’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를 빼내달라고 청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제)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오모(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근무하며 김씨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했다.

일정표 등을 문서로 촬영한 게 36번, 눈으로 확인한 경우는 20차례였다. 오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때를 주로 이용해 비서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회장님 일정 조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두 회사는 상표권 및 소송을 벌이다가 하면 지난해는 박찬구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www.kores.or.kr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자원으로 더 편해지는 세상,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